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주간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골로새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충청남교회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팩스 563-3932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국장: 조순진

2000년 신임 서리집사 및 권찰 후보 교육·면접

거룩한 교회를 세우는 선한 청지기로 세우소서

12월 1일 수요일 1부·2부예배 후에

가.교구장 및 지도교역자 등의 추천을 통해 선발된 2000년도 신임 서리집사·권찰 후보자 교육이 오는 12월 1일(수)에 1, 2차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실시된다(단, 권찰은 면접 제외). 성도들은 이들이 형식적인 요건만 갖춘 교회일꾼이 아니라, 진정한 예수 일꾼으로 세워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는 기둥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다.

날 짜	구분	시간	과 목	강 사	장 소	대 상
12월 1일(수)	1차	12:40~13:30	1강:교회의 봉사와 헌리	김성관 목사	갈릴리움	여서리집사 및 권찰
		13:40~14:30	2강:청지기로	김희수 목사	갈릴리움	
		14:40	면접·교구별	교구담당 목사, 장로	교구(대기실)	
	2차	20:10~20:50	1강:교회의 봉사와 헌리	김성관 목사	갈릴리움	남서리집사
		21:00~21:40	2강:청지기로	김희수 목사	갈릴리움	
		21:40~	면접·교구별	교구담당 목사, 장로	교구(대기실)	

교구	면접장소	교구	면접장소
1	교육관 109	10	교육관 311
2	교육관 208	11	교육관 512
3	별교전도지원	12	교육관 401
4	교육관 114	13	교육관 402
5	교육관 105	14	교육관 405
6	교육관 304	15	교육관 408
7	교육관 305	16	교육관 410
8	교육관 308	17	교육관 411
9	교육관 310	19	교육관 412

신령한 예배를 위하여 12월 5일을 지각없는 주일로 제1교육위원회 산하 전 부서

제1교육위원회의 산하 전 부서는 지난 1개월간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이 협력하면서 예배 지각 안하길 운동을 전개해왔다. 예배가 교회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전체가 가져야 할 생명력의 시금석이기 때문이다.
회가와 감사, 그리고 소망으로 준비된 성도들과 그 위에 입제하시는 하나님의 영의 역사는 예배를 진정한 영적 감동으로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드러내면서 온 성도들을 하나님 은총의 감격에 젖게 한다. 이에 따라 과거 신앙의 선진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경험하고 성령이 회복되고 세상을 이기는 하늘의 능력을 소유할 수 있었다.
그러나 현대 교회의 성도들 중 오늘 내가 드리는 예

배가 바로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준비된 예배, 감격에 젖는 예배가 즉흥적 예배, 형식만 만족시키는 예배로 대체되고 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살아 있는 예배에 대한 교육은 어릴 때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리고 예배가 과연 잘 준비된 마음으로 드리지느냐 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예배 시간을 준수하느냐'로 검증될 수 있다. 따라서 제1교육위원회는 12월 5일을 '지각없는 주일'로 정하고서 산하의 모든 부서 예배뿐 아니라, 온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가 준비된 예배, 은총의 감격에 젖는 예배가 되기를 기도하기로 하였다. 학부모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성도들의 중보의 기도가 요청된다.

12월 1일 출발 우간다 단기선교단 이순주 단기 평신도선교사는 1년간

우간다 단기선교단(지도: 이순주 목사, 단원: 장종균, 임동태, 조옥경, 김석진, 추진회: 엄정실, 손소영, 최은아)이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우간다 현지에서 선교사역을 실시한다. 금번 우간다 단기선교단 단원들은 LMTC 수료생 및 훈련생을 중 선발된 이들로서, 해당단기선교훈련의 차원에서 현지를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들은 현지에서 LAMP(영어습득) 훈련, 문화

적응훈련 등을 통해서 그동안 LMTC를 통해 배운 내용들을 실습하게 되며, 이와 더불어 현지인 교회 사역도 함께 된다. 한편, 이순주 단기 평신도선교사는 1년간 우간다에 머물면서 우간다 갈라라 근교에 있는 RTCC(개혁신대학)에서 행정담당선교사로 섬기면서 선교사역에 헌신할 예정이다. 성도들은 이들 모두의 건강과 안전, 그리고 성과있는 훈련 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다.



2천년을 향한 '99 교사수련회 잘 마치

지난 22일과 23일 양일에 걸쳐 진행된 '99 교사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쳐졌다. 연인원 1300여 명의 교사들이 참석하여 진행된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참전한 대부분의 교사들은 말씀과 주제특강, 그리고 그룹별 특강과 기도회 등 모든 것들이 만족스러웠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 수련회가 모처럼 진행된 교사수련회인데다가 1, 2, 3교육위원회와 연합하여 진행된 특별한 행사였다면에서 큰 보람이 있었다고 하면서 앞으로라도 교사수련회가 계속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전도위원회 남녀전도부 지회별 연말 총회 현행 규정대로 실시토록

전도위원회의 산하 남녀전도부 지회에서는 아래의 사항들을 유념하여 전도회 총회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남녀전도부의 지회별 총회는 12월 정기당회(12월 8일)가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 사이에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남전도회의 연명별(요한, 베드로, 바울) 조정은 당회에서 이루어질 '규정집 개정안 심의'가 종료되는 대로 규정에 준하여 하회 각 지회의 총회 일정까지 심의가 마쳐지지 않는 한, 지금까지 진행시켜오던 99년도 현행규정에 따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연명별로 제조정하여 이미 총회를 실시한 전도회 지회들은 본 분교에 준하여 총회 결과를 유보하시기거나, 1, 2회의 일정에 따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말 전도위원회 행사일정
 - 전도위원회 총회: 12월 중
 - 지회별 총회: 12월 13일 - 18일
 - 남녀전도부 총회: 12월 26일

! 예배 바로 세우기

아직도 계속되는 비리릭 주일에는 핸드폰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전체적으로 보아 현저하게 좋아지고 있지만, 예배 시작 전 열리는 광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휴대전화나 배뱃을 꺼들 재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부주의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전체에게 큰 실망과 파해를 끼치는 일이 없도록, 또한 무엇보다도 본의아니게 경건한 예배를 방해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모두가 항상 주의해야 하였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일에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맡기고, 아예 핸드폰이나 배뱃을 소지하지 않는다면 더욱 좋겠습니다.

알림

1. 선교사들에게 편지 보내기
연말을 맞아 선교사님들에게 '편지'를 보낼 성도나 부서들은 12월 초까지 선교위원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를 가득한 따뜻한 편지를 기다립니다.

2. 기도원 사용 미리 연락
기도원 보수공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천년 가을 성경학교 및 수련회를 총회 기도원에서 실시할 예정인 부서들은 부서간 사전 조정이 필요할 것이 예상되므로, 기도원으로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인 목사

참 감사하는 생활을 삼시다

(시편 116:1-17)

“...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감회로다...”

1. 기억해야 할 것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 위에서 나그네 생활하는 천국의 시민으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항상 기뻐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시민증을 받은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필요 없는 근심 걱정 없이 주지않아 울지않고, 기뻐서 찬송 부르는 생활을 하다가 세상 떠나면 더 좋은 곳으로 하늘나라의 찬송을 계속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쉬지 않고 기도하는 생활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숨을 쉴다, 밥은 하루에 세 끼만 먹어도 되지만 숨은 하루에 세 번 쉬어사는 안입니다. 계속해서 숨을 쉬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가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 나라와 그 영광을 구하는 기도의 생활은 마치 쉬 쉬는 것과 같습니다. 영적으로 숨 쉴어지면 죽습니다. 쉬지 않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말 거친 책인이 중한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되겠는데 우리의 힘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죄악을 미하시는 마름도 주시옵소서. 의를 사랑하시는 지혜도 주시옵소서” 의를 행하는 권능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고 기도하는 기도의 생활이 쉬지 않고 계속 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법사에 항상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만물은 모두 주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제가 설교하다 마시는 이 물도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물론 수도꼭지에 보내고 세금 내고 마신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비를 내려 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도 갈증으로 고통받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만물은 다 주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광범하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것을 기뻐하고 세상 끝날까지 길이해 주실 보호를 받을 것을 기뻐하고 필요한 것 때를 따라 계속하여 주시는 것을 기뻐하면서 책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세상 바깥 때까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 히스기야 왕의 시편

시편 116편은 히스기야 왕의 시편입니다. 그가 왕위에 있을 때 앗수르의 침략으로 유대의 마을이 점령당하고 마침내 예루살렘성이 포위되었습니다. 그물 안에 갇힌 물고기가 신세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의 침공을 막기 위해 예루살렘 성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나가서 싸우자니 힘이 모자라입니다. 앉아서 견디자니 먹을 것이 점점 떨어집니다. 이쯤 되면 백성들은 원망이 터지고 반란을 일으킬 법도 한데 예루살렘은 조용합니다. 어떻게 조용합니까? 젊은 히스기야 왕이 백성들에게 솔직한 성경으로 협조를 구했습니다. “백성들이여, 원수들의 공격하는 소리는 안 들을 수 없으니 귀로는 듣지만 대답은 하지 마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니 원수가 성 안에 들어 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부자이시니 때가 되면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면 때가 되어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이사가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내어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런 히스기야에게 이사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해줄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전갈을 받고 히스기야는 기쁨으로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룻밤을 지나는 동안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서 앗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썩 더쳐 버렸습니다. 18만 5천명이라는 숫자는 지금도 큰 군요미적일 옛날에는 대단히 큰 군대입니다. 이러한 군대가 일시에 쓰러졌습니다. 이제 그물에 걸려 들었던 물고기가 그물이 썩어 떨어져서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시민들은 성문 밖으로 마음대로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유입니다. 그리고 앗수르 군대가 전쟁 중에 먹으려고 싣고 왔던 식량이 모두 이시야엘 백성들의 차지 되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원수의 침략의 손길에서 벗어났습니다. 먹을 것이 풍년 손꼽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쯤 되면 자기네들이 잘나서 이겼다고 교만해지기 쉽습니다. 먹고 배부르니 놀라, 취하, 도배 부르고 춤추자 하면서 흥분하게 될거라기 쉽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시편 116편에 기록된 대로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눈물에서 건지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사방에서 구원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전능하신 하나님만 믿어라. 죄를 범하지 말고 너희들이 그 동안 기도할 때 약속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 기도를 같이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겸손히 감사하면서 우리의 남은 생명은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을 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육적으로 멸망을 면한 히스기야 왕이 온 백성에게 외친 이 말을 귀로 듣고 마음에 새겨 하나님 앞에서 바보 같아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3. 참된 감사를 위하여

그러면 참된 감사는 누가 합니까?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은혜를 몰라서 감사를 못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효도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부모님의 은혜를 몰라서 불효합니다. 미련한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둘째로, 겸손한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나쁜 아무것도 아닌데 큰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겸손한 자는 감사가 나오고 교만한 자는 원망이 나옵니다. 감사 없는 원망생이는 가장 미련한 사람입니다.

셋째로, 헌신할 마음이 있는 사람이 감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주셨으니 마쳐야겠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감사할 줄 압니다. 헌신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 사람은 원망하고 당파를 만들어 싸움만 붙여 놓습니다.

4. 우리들의 감사

충현의 성도들이여,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육적으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육적인 축복은 잠깐 지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영적인 은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를 위하여 동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요 3:16) 믿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18만 5천명의 원수를 죽이시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오셔서 악마의 세력을 꺾으시고 승리하셨습니. 저와 여러분은 모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근심에 쌓여서 질병의 고통을 당하다가 세상을 마치고 저쪽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는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 주님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시민권까지도 이미 주셨습니다. 시민권을 받은 우리들을 위하여 성령님이 보호하여 주십니다. 가는 길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십니다. 참으로 영적인 은혜가 한없이 큼니다. 영육간에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무뎝니다.

2년 전 IMF 관리 체제로 들어갔을 때는 당장이라도 굶어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경기가 많이 회복되었다는 소식이 자주 들려옵니다. 그래서 시장에도 고급 물건을 사러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해결된 것은 좋은데 다시 매를 맞을까봐 걱정스럽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승리하신 후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제사를 드리고자 하였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뭇만 아니라, 이것도 잘만, 얼마 못가서 교만한 마음이 생긴 히스기야가 자기를 칭찬하러 온 바벨론의 사자들에게 계 국고에 있는 것들을 모두 보여 주며 자랑하여 하나님 앞에 매를 맞게 된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제대로 감사를 못하고 다시 고급 물건을 사면서 사치화하다 하나님의 매를 맞을까봐 겁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조심하는 자가 되고 헌신하는 자가 되어 감사를 바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5. 결 론

히스기야 왕이 시편 116편에서 “값으로, 값으로, 값으로”라면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며 살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원한대 충현의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그대로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즐거움에 교만해지지 말고 어려움 때에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뻐하고 쉬며 기도를 하며 법사에 감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



김성관 목사

근심
(고린도후서 7:10)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두 종류의 근심

근심을 버리고 있지 않은 사람이 있
을까요? 불신자와 성도를 막론하고
는 사탄에게 받은 근심이 있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거역과 두려움
을 느끼는 온갖 환경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들은 죄의 고통으로 결
과를 알고 있기에 그 고통으로부터 해
탈될 위로를 구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어 보면, 이런 종류의 근심들은 근
본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근심인 것을
알게 됩니다. 반대로, 성도들의 고민을
알게 해 보십시오. 그들은 평화와 안
락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임재를 받
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죄의 악함 때문
에 생기는 고통을 이겨낼 평온을 오직
하나님 안에서 찾습니다. 이 근심은 하
나님 중심적인 근심이라고 할 수 있
습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근
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인 "믿음"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
으로 나가는 근심은 성도들을 회개와
진정한 변화로 인도합니다. 바로 그
근심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는 근심입

근심과 회개

근심에 대한 발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다스려져서 어려움을 일으키지도 못하겠습니다. 만일에 혼인이 있다면 그것은 근심과 기쁨에 대한 우리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난 지난 주에들을 드림에서 벌써 다 회개했어. 다 지난 일이지." 여러분, 이것은 명백히 그릇된 것입니다. 죄에 대하여 혼인 근심하는 마음을 품고있는 것은 회개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난 정말로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지만, 내게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들은 미안하고 슬픈 마음을 한번쯤 가져보는 것으로 만사가 별 문제 없습니다. 이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이 दूसरी 것입니다. 깊은 근심이 있는 것은 회개에 있을 수 없습니다. 진심이지도 못하게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진정한 근심이 아닙니다. 가벼운 대체물에 만족하고자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한 할수 없습니다. 꼭꼭잠자고 또 혼란스러워지고 더 위험한 상상속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회개가 없으면

수년 전 어느 주일에 저는 어느 교회
를 향해 차를 몰았습니다. 그 교회가 더
이상 그 자리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간 것입니다. 그 곳에 도착했을
때, 저는 정말로 교회가 없어지고 빈 공

만 남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무척 슬펐습니다. 그리고 회개했습니다. 나에게 잘못된 행위가 있으면 먼저 회개 달라라 그 나라에 버림을 준다. 그런데, 저는 그 나라를 떠나 돌아가는 길에서 부른 한 학교에 주차되어 있는 몇 대의 자동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차의 주인들은 내가 방문하고자 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이었습니다. 그 시간, 목사님은 성도를 앞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틀려 타버린 것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교회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불행하게도, 그가 전하는 메시지는 회개가 없었습니다. 이 신세 이 아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회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는 문제를 다른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상처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은 오늘 복음을 다시 보십시오.

옴으로 비추신 은총과 구원의 선물을
 거룩한 이리직심에 대하여 깊이 감사해
 합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감
 으로 필한 것들을 주고자 하시지만,
 우리도 하나님 그 사랑하신 선물을 거절
 할까 맏니다. 따라서 우리는 깊이 소
 회하여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했어
 야 하는 것들을 하지 못함으로 하나님
 께 내어주시기를 기원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더더욱 기뻐합니다. 그 어떤
 아이들지 간에, 모든 죄악들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위로부
 더 내리신 선물을 거절하게 맏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선물로부터 우리들 격
 리시키는 이 모든 죄악들을 던져버려야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감
 심해 하는 것입니다.

세상 근심은

그러면, 세상 근심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열매없는 땅

이야 헛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정말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
는 신과 세상 중심을 잘 분별할 수 있
어야 합니다. "나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고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고순 그리스도의 나레 될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함이라"(벧전
1:7). 야만! 세상 중심을 조종하는 자
가 누구입니까? 사탄입니다! 그가 하나님
과 그의 영광 대항하면서 조종하는 것
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이나 세
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함은 아버지의 사랑이
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락의 정
욕과 이 세상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좃아 온 것이 아니라 세상에 좃아 온
것이라"(요일 2:16). 세상 중심을 인식
하십시오. 그것으로부터 돌이키십시오.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인도할 세상에
속한 회개에 연연해 하면서 세상이
세상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사할나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성경말과 기뻐하며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 신실한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깨뜨려 완전히 온전 길로 나아갔고, 하나님의 은총에 순복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사하지도 않았고 하나님께 슬프게 한 사함을 잊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을 보답하기 위해 게을렀으며, 선택받은 용서 받고 구원의 은총을 얻었음에도 배반한 것만 씁쓸히 생각해 왔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되 보답하는 것과 영광된 삶에 감사하되 보답하는 불평하며 자들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에게 일한 하나님의 진노를 잘 알고 있습니다(롬 2:2). 그러나, 이제 우리의 죄악들을 적시사함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근심을 시키지 않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람다운 기쁨을 회복하십시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길이 참으시는 은총 안에서 믿으십시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나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믿지 못하여 그 의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통칭함을 멸시하느나 다만 네 고집과 품행이 내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일한 진노를 내가 뵈느니라"(롬 2:4-5).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에게 경건한 근심을 불러일으켜 회개에 이르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 선하심 속에서 함께 구원의 은총에 거하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이는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역사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고후 7:10). 경건한 근심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근심은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하며, 이는 회개 안에서 일어나는 진정한 역사입니다. 이 '회개'의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만일에 어려움이 우리에게 닥쳐도 믿어 후회하지하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이었음을 인정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구신일 것입니다.

근심해야 할 진정한 이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경건한 근심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와 다름이 없
다. 우리에게는 마음을 다한 회개와
돌이킬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죄가
우리의 심령과 인격 전체를 전리하여 돌
이킬 부작정인 폭로로 강하게 변화시키
기 때문입니다. 죄의 어두운 길에서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모든 선한 일들이
왜곡되고 거짓된 것들과 뒤섞이게 됩니
다. 그래서 근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죄
를 짓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줄거

티 일을 위해 시간과 힘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아야 할 하늘의 기업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둔다" 것이 '썩어질 것'인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것'으로 되어 있으니 하늘의 실이 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썩고 있고 그 모든 영광이 썩과 같고으니 썩은 바르고 있는 멸치처럼 오직 주의 말씀은 새대로 꽃도 피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이미 말씀이냐"(베전 1:23-25). 우리의 초점을 세상에 속한 것들에 맞추지 말아야 합니다.

몇몇은 속히 사립입니다. 우리들은 거짓 없이, 죄하지 않은 하늘에 있는 기업을 추구한 자들입니다(베전 1:4). 따라서 우리가 세상 근심에 빠지지 않는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뿌듯히워해야 합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고는 금방 사라질 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고 세상 근심은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주종하게 만듭니다. 세상 근심은 우리를 분함과 죄책과 비참함으로 몰아 갑니다. 그리고 더욱더 비극적인 것은 그

세계 선교

감사할 국제 음식 축제를 마치고 감사함으로 주께 나아가자!



지난 11월 21일, 국내외국인선교부와 영어교육부는 추수감사절 연합 행사로 국제 음식 축제를 제2교육관 1층에서 가졌다. 이 행사는 중원교회에 출석하는 국내 거주 외국인들이 함께 모여 다양한 문화들 속에서 동양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200여명의 외국인과 350여명의 내국인들이 함께 모여 각국의 음식과 문화를 소개하며 서로의 다른 모습들을 보고 또한 찬양과 기도를 통해서 그 속에서 동양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당일 행사를 위하여 전날 많은 외국인들이 교회에 나와 미리 음식을 준비하였다. 국내외국인선교부의 지체들의 경우 직장 문제로 늦은 시간에서야 준비를 시작하였으나 자신들의 나라 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대접하기 위하여 피곤한 중에도 즐겁게 교제하며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이 아름다웠다. 또한 대학부와 청년부, 영어교육부의 형제 자매들이 이 행사를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행사 장소를 장식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행사를 준비하였다.

행사는 전신된 11개국의 음식을 보여 입맛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한국을 포함한 11개국의 지체들이 함께

모인 가운데 영어교육부 노봉민 목사님의 설교와 김진재 장로님의 기도로 추수감사절 예배가 드려졌다.

이후 중국,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한국, 몽골, 필리핀, 스리랑카, 북미, 우즈베키스탄의 순서로 나라별 발표가 이루어졌다. 각 나라가 발표될 때마다 그 나라의 음식이 제공되었고, 사람들은 그 나라의 음식을 맛보며 그 나라의 문화를 느껴볼 수 있었다. 음식은 방글라데시의 토가리, 중국의 물만두, 독일의 소시지와 샐러드, 인도의 치킨 커리, 인도네시아의 런탕, 몽고의 도즈, 필리핀의 닭요리, 스리랑카의 카카바, 북미의 칠면조와 샐러드, 우즈베키스탄의 샤스림, 한국의 잡채와 떡 등 다양한 음식이 제공되었다. 참가자들은 이렇듯 생소한 음식들을 접하면서 음식을 통해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며 음식을 나누며 문화적인 벽이 낮아지며 좀더 친밀해짐을 느낄 수 있었다.

몽골이나 스리랑카 등 몇몇 나라의 자신들의 고유의 음식까지 준비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소개했으며 이 시간을 통해서 생소했던 국가들 사이에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이 확장될 수 있었다. 각국의 특색에 맞는 문화적인 발표와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찬양이 이어지면 서로의 다름과 하나됨 앞에서 동일한 지체됨을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두 시간이 넘게 진행된 행사는 김영주 장로님(국내외국인선교부 부장)의 기도로 마쳐졌다. 음식이 충분하지 못하여 아쉬웠고 야채도 마저 먹지 못한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세계 곳곳에서 온 사람들이 음식을 준비하여 함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었다.

(김봉연 선교도사)

우간다를 향하여

이 순 주(간지 행선도선교사)

12월 1일 1년간 단기 선교 사역을 위하여 우간다에 갔다.

예전의 나이에 있어 선교란 관심 밖의 일이었지만 지금은 나의 일부가 되어 있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을 시키시고 성장하게 하심이 이 때문에 아닌가 생각해보니.

캐나 단기선교를 지난 8월에 마치고 우간다 사역을 결정한 것이 순간적인 감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속적인 확신과 기쁨으로 함께하셨습니.

이제 말씀으로 확신을 주시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의지하여 고향을 떠났던 것처럼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용되어 있는 모습을 내려놓고 현지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제를 잊지 않고 청지기로서의 본분을 지키며 우간다에서의 1년의 삶이 주님을 만나는 날까지의 나의 삶 가운데 하나의 과정임을 인식하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는 나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이로써 우리도 돌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고 그로써 합당히 행하여 법사에 기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좇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권함과 오래 참음에 이르러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쁨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기를 원하노라”(골 1:9-12).

위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나의 1년간의 모습, 아니 평생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민족 복음화

전도교단 - 1

전도의 새 길을 연

’99 교구별 대신자 전도

교구가 전도에 앞장서고 있다. 전도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농어촌 전도 및 교회주변 전도 등에 늘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선한 열매들을 맺어온 각 교구가 이번 가을에는 각 교구별로 대신자 초청전도를 가졌다. 교구식구들이 전반적으로 열심을 내었고, 열매도 풍성했다. 이에, ’99 교구별 대신자 초청전도집회를 결산한다.



△ 3교구 대신자 전도초청전지

관계 전도

무엇보다도 금번 대신자 초청전도집회들의 핵심적인 특징은 ‘관계 전도’라고 할 수 있다. 가족이나 친척들, 그리고 가까운 이웃들을 전도의 대상으로 정해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인 사랑을 가지면서 복음으로 초청한 것이다. 관계 전도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오랜 시간을 두고,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삶으로 보이면서, 또한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전도해야 한다.

그런 면에서 금번에 실시한 관계 전도를 통한 대신자 초청전도는 전도뿐만 아니라, 말씀의 생활화에도 큰 도전이 되는 전도방식이었다.

연합 전도

모든 교구가 다 실시한 것은 아니다. 적지 않은 교구들은 교구 초청전도집회를 할 때, 찬양대나 찬양단 혹은 연주단 등과 연합하여 행사를 진행함으로써, 대신자들을 초청할 만한 자연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에 따라 성도들의 모임에 처음 참여하는 대신자들도 매우 자연스럽게 교구의 성도들과 어울리면서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축제 전도

대부분의 교구들이 대신자 초청전도 집회를 축제 형식으로 준비하여 자체 연극이나 찬양 혹은 연주를 준비하며 정성껏 준비한 만찬을 나누고, 때에 따라서는 체육대회도 가지면서 교구식구들과 초청받은 이웃들이 축제적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기획했다.

목양 전도

금번 대신자 초청전도는 ‘관계 전도’에 기초한 것이



△ 17교구 대신자 전도초청전지

었기 때문에, 한번 초청된 대신자들은 계속적인 목양적 돌봄을 받을 수 있었다. 교구에서는 초청의 남을 통해 대신자들과 구약식구들이 함께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를 익힐 수 있도록 하였고, 이에 따라 향후 구역에나 기타 구역모임 등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여 구역장의 목양적 심기를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한 것이었다.

사랑 전도

교구에 따라서는 초청전도행사에 해당지역에 사는 어려운 이웃들을 초청하여 함께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므로, 초청전도집회가 이웃 사랑의 자연스런 장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이 모든 아름다운 섬김들이 2천년도에도 계속될 뿐 아니라 더욱더 활성화되어 각 구역에서부터 영혼 사랑의 열기가 더욱 일어날 수 있어야 하겠다.

'99 교사 수련회

교사시명

학인 · 점검 · 결단의 시간

'저희로 예수를 알게 하라'

'저희로 예수를 알게 하라'는 주제로 열린 '99 교사 수련회가 끝났다. 제1, 2, 3교육위원의 신하 전 부서가 동참하여 실시한 금번 수련회에 1,400여명의 교사들 모두가 참석하지는 못했지만 수련회를 계획하고 진행한 준비위원들과 참석한 교사들 모두는 충현교회 교회학교가 지니고 있는 현재의 역량과 미래의 가능성을 충분히 맛볼 수 있었다.

교사의 직분은 사람이 세운 인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그것은 '신적인 기원'을 갖는다.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나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엡 4:11-12). 이와같이 교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피로 값 주고 사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정하신 직분이다. 따라서 모든 교사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의 방법과 성령의 능력을 교사의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자신이 받아 섬기고 있는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깊이 깊이 생각해야 한다.

금번 수련회는 바로 이 가장 근본적인 사명의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면서 새 결단을 이루는 기회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사로서 지니야 할 중요한 지혜들을 익히고 나누는 시간이 되었다. 이에 따라 금번 수련회는 주교강연을 맡아 호소력있는 도전을 던져준 김성관 위임목사와 박형용 목사, 그리고 그룹별로 진행할 특성있는 주제특강을 맡아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지혜를 전한 교역자들, 그리고 모든 봉사자들과 준비위원들과 참가한 모든 교사들이 하나의 오펜스트라로 아우러져 연주해낸 아름다운 신포니가 되었다.

교사수련회를 마치고

저희로 예수를 알게 하라

무조건적 열심함으로 양육하는 것 앞장섰노!

이번 수련회는 그날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열심한 하면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자라는 자극을 준 수련회였습니다. 유아교육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만 교육을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지요. 교사 위해서는 체계적인 공부를 하여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교사로서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해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유치부 교사 허정숙)

이번 수련회는 사막에서 만난 오아시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늘 복음의 능력을 소유한 교사가 되고 싶었지만 말씀에 대한 고갈을 느껴오던 터에 이번 수련회의 특강 시간에 들려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교사'를 듣고 마치 긴 사막길에서 오아시스를 만나 생수를 들이킬 기쁨입니다. 담담한 영혼이 뿜났습니다. 이제 갈증을 해소했으니 재충전을 받아 교회학교 교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싶군요.

(고동부 교사 유영숙)

종교 교육 알게 되어 참 기뻐한다

수련회에 참석해 좋은 교육을 받게 되어 참 기쁩니다. 특히 유아나 참석자 모두 시간이 늘 부족하겠지만 그래도 시간을 조개어 이만큼 기쁘게 지내 마땅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불참한 사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정작 듣고 깨우쳐야 할 사람은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도 와서 듣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참석하지 않은 교사들은 반성하고 주회측은 보다 효율적인 홍보를 하여 더 많은 인원이 참석하였으면 정말 좋았을 것입니다.

(전남부 교사 조재철)

그날을 주재특강 유익적절

이번 기회에 자주 있었으면 합니다. 1년에서 서너번 계절마다 개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시별로 나누어서 그룹별 주제특강을 한 것이 적절하고도 유익했습니다. 특히 강사님들의 강의가 재미있었습니다. 좀더 많은 선생님들이 참여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아주 유익한 수련회였습니다.

(영남부 교사 송혜경)

화합과 평강을 선물로 안겨준 찬미의 밤



11월 19일에 '충현 찬양의 밤'이 열렸다. 13개 찬양대는 찬양을 드림으로써 또 참가한 성도들은 찬양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함께 주께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밤이었다.

400년 전에 교회 음악으로 시작되었던 찬드 벨리언의 찬양은 맑은 하늘을 나는 종달새의 소리였다. 종달새의 비상을 쳐다 보기 위해 고개를 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이 자꾸 상승해가는 것을 느꼈다. 만물창조 찬양의 찬양은 기쁨을 축복하게 적시는 찬양이었다. 마음을 차분하게 만드는 찬양은 듣는 이들에게 평안을 선물하였다. 칠로암찬양대의 '다윗의 노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다윗의

담대함으로 성전을 가득 채웠다. 그 웅장한 힘이 전해져 우리도 다윗처럼 용기 있는 성도가 되리라는 각오로 주먹을 불끈 쥐게 만드는 힘이 있었다. 여성들로 이뤄진 호신나찬양대의 안경장 있는 화음을 통해 새벽에 예수의 돌무릎 앞에서 쉬고, 예수님을 각별히 따르는 여인들의 못마땅한 열정을 보았다. 크로마하르찬양대의 기악과 성악의 조화는 숲에서 노래하는 세조리를 들려 주었다. 아주 잔잔한 평화가 깃들었다. 시온찬양대는 하나님 앞에서는 온 세상이 하나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었다. 화목한 이들의 찬양은 생물을 길어 올리는 듯한 청량함을 맛보여 주었다. 가브리엘찬양대는 이름 그대로 천사의 속성을 나타내었다. 주님의 자비를 그 날개에 입고 찬양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성도들의 경배를 날개에 실어 주께 드렸다. 벨리언찬양대는 청년들의 확신에 찬 찬양을 보여 주었다. 이른들 '청년들을 믿어도 좋으니, 음... 믿음의 잔다'가 라며 엄지 손가락을 들어 그들을 격려했다. 아멘찬양대에는 부부가 많았다. 그래서인지 믿음의 좋은 부부의 초대를 받아 그들의 아름다운 정열을 기념고 있다는 우아한 상상을 하게 만들었다. 충현남성 중창단들은 고집이 센 도공이다. 마음에 드는 도기를 빚을 때까지 이미 다 만든 도기를 아낌 없이 깨뜨려 버리는 도공처럼 가장 맑은 소리로 주를 찬양하려는 청년들의 고집을 볼수록 정말 기분 좋다. 온갖 불순한 것을 다 걸러낸 뒤에 나온 최상으로 정화된 찬양은 우리를 전율케 한다. 임마누엘찬양대는 광대한 주의 권위 앞에 떨리는 인간의 마음을 형성해 했다. 찬

양을 들으며 그 자리에서 서 무릎을 꿇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할렐루야찬양대의 찬양은 주의 자녀들에게 내리는 평강이었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한다는 주님의 약속이었다.

'충현 찬양의 밤'은 참가한 모든 사람에게 화합과 평강을 선물로 안겨 준 아담담고 귀한 찬미의 밤이었다.

(전원제 기자)



지체물소식 / 물매들

지체물 소식

영아부

지극히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는 우리들

추수감사주일, 얼마, 아빠 자신들이 과일과 채소, 곡식이 되어 여러 친구를 앞에서 자랑하며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많이들이 골고루 먹어 몸이 건강하기를 바라는 특별한 행사를 마련하여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오목배와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기들이 축복 자라는 것을 감사드린다. 이날 전도사님께서는 고침을 받은 문둥병자 중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감사했다는 말씀을 들으며 지극히 작은 감사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로 모두 마음 속 깊이 다짐했다. (송혜경 통신원)

유아부

귀한 사명에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교사들은 22, 23일 양일간 교사수련회에 참가했다. 내가 올다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말씀을 바로 받아 제대로 옮기는 교사가 되기 위해 공부했다. 천국만큼 양심이라는 그 귀한 사명을 떨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두려움을 아는 교사가 되려고 했던 그 첫 마음을 잃지 않았다는 반성하기도 했다. 찬양, 말씀, 특강, 기도회, 그룹별 주제특강, 간식시간까지 짧은 시간에 하느님과 조금 어귀웠지만 그래도 '잘과 잘'게 제대로 시킨 보람에도 자부한다. 우리 교사들이 지금 이 결심을 잊지 않고 실행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임미은 통신원)

초등부

추수감사 헌물 '소망의 집'에 전달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어김없이 자연의 선물을 우리에게 어김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학생들이 좋은 과일과 쌀을 가지고 와서 부엌 소망의 집에 전달했다. 이곳은 지혜 노인과 장애 아동이 함께 거하는 곳으로 작년에도 추수감사절에 과일을 전달했다는 데 올케는 찬양대원들이 교사들과 함께 가서 찬양도 하고 또 어른들에게 안마도 해 주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받은 많은 것을 누리고 있으면서도 감사할 줄 모르며 생활하였던 것을 반성하고 불완전 이웃들을 돌보지 못하였던 것도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 이제 추위로 다가오는 때 추수감사절만 아니라 평소에도 불완전 이웃들을 돌보아 줄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었으면 한다. (이미숙 통신원)

중등부

모처럼의 축하할 일

모처럼 축하할 일이 있었다. 이스라엘 정부 주최로 세계기독교대회가 열렸었는데 김아름이가 유수상을 수상하였다. 아름이의 앞날에 이런 기회가 자주 주어지길 바란다. 또 박명숙 선생님께서 연구수업을 하셨다. 이는 비디오표 선교사역 현장보고 한 후 느낀 점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영상시대를 살아가는 신세대의 교육방식으로 효과적인 접근이란 호응을 얻었다. 지금의 우리 실정에는 적용을 해 시킨다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 추구해야 할 방향이란 점에는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손은경 통신원)

청년2부

새로운 비전을 품고

지난 주 수요일 2부예배 후, 목사님, 장로님, 그리고 교사들과 신임 임원단들이 영아부실에서 청년2부를 위한 기도회를 가졌다. '감사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라는 전령종 목사님의 말씀과 아울러 새롭게 출발하는 청년2부의 새로운 비전을 향하여 여러 가지 지체 재목들을 놓고 뜨겁게 기도했다. 청년2부의 부흥과 부부 모임의 활성화, 찬양 사역을 통한 영도의 교제, 문서 선교, 미혼 남녀들의 결혼 문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회원들의 문제들을 놓고 한 마음으로 기도한 후, 따뜻한 전령종 대주자를 마시면서 감동있는 기도를 나누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백명자 통신원)

에바다부

성경퀴즈대회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지난 주일 학생회에서 성경퀴즈대회를 가졌다. 분반 공부를 통해 학생들이 배웠던 출애굽기를 범위로 정하

여 그동안 풍부한 지식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사당, 평화, 온유, 충성심으로 조를 나누고, 가장 빨리 여섯 문제를 맞추는 팀이 승리하는 방식으로 성경퀴즈가 진행되었다. 어느 팀의 우열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아주 열심인 문제들을 맞추는 에바다부 학생들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귀하게 자라나가는 천국인물들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이미란 통신원)

3교구

사랑의 잔치

20일 만나회에서 달란트대회가 열렸다. 1지역 권사님들의 아름다운 찬양, 바이올린 연주, 한영순 권사님의 사랑의 특송, 어머니와 아들의 멋진 앙상블(피아노, 클라리넷 합주), 만물린 연주와 고승균 집사님의 성경 암송, 논시율을 적시는 수화 찬양, 사랑스런 아이들의 찬양 등으로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들을 힘껏 발휘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 대회의 심사를 맡으신 중환장 장로님은 고심 끝에 모두에게 1등을 주셨다. 2부 순서로 나사렛홀에서 예배를 드렸다. '형제! 연합함'이 어찌 그럴 이름다운지요 라는 목사님의 설교가 마음에 와 닿았다. 여섯 가정의 장로님 부부가 올리는 찬양이 잊어짐에 함께 자라난 교구식구들이 더욱 행복했다. 향연만 장로님의 사회로 새신자 환영과 헌화의 시간, 행운권 추첨으로 사랑이 충만한 시간을 가졌다. 그리스도인의 향기가 가득 피어나는 3교구를 바라볼 때 복음의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 (백미경 통신원)

12교구

감사의 제목 나누며 주님께 감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작은 잔치가 열렸다. '말은 바른해를 기억하며 감사가 나타나니 삶을 살라'라는 목사님의 말씀에 이어 소년부 어린이의 시편 암송과 바이올린 연주에 맞춰 부부 독창, 영아부 아기들이 인니들과 어울려 고사리 손을 가지고 서툰 솜씨로 청ings를 연주하며 협정하는 모습은 흡사 사랑스런 자녀, 그리고 어지런 집사님의 잔잔한 음성으로 다정한 박칠권 집사님의 '약속의 하나님'이란 시를 통해 구원의 주님을 묵상하였다. 두 달 전 천지총양 수습을 받은 신은희 권장이 나와서 그 동안 미처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했던 일들이 생각에 보던 감사한 일이었다. 병상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알았고 삶의 우선 순위를 하나씩 두며 감사하는 삶을 살았다는 간증이 있는 후 마지막으로 김재수 선생의 찬양이 있었다. 또한 교구에서는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과일 바구니를 준비해 오셔서 병상에 계신 성도들을 심방하기 하였다. (이규숙 통신원)

반석교회를 다녀와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

이 용 표(15교구)

우리 교구 미용과 침술봉사팀은 서너 차례의 방문으로 낯설지 않은 원주 반석동 반석교회를 향해 각기 맡겨진 임무를 가지고 새벽 공기를 가르며 중부고속도로로 힘차게 달렸다. 2시간만 후 도착한 그곳에는 새로 부임하신 박봉준 목사님 내외님이 우리를 반겨 주셨다.

미용봉사팀은 머리칼락이 사방으로 흩어져 청소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까닭에 추운 날씨에 어디서 봉사할 해 할 계획에 있었지만, 박 목사님께서 그런 우려를 억 사자지도록 선포 예배설을 해주셨다. 따뜻한 난로는 우리의 두툼한 옷을 뚫어주었고, 하나님께 주신 찬은 난는 우리의 눈치를 해 주었다.

마음문을 여시는 동네분들을 향해 서투른 솜씨이지만 열심히 파마하고 깎아드리고 그분들을 멧쟁이로 변신시켰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열심히 전하여 교회에 나오셨다는 약속을 받았고, 세명의 집사님도 내었다. 경기를 하는 아이를 침술로 낮게 했고, 우두룩 소리가 나고 몸이 아프던 것이 좋아졌다. 나이드신 어느 할머니의 소리에 마치 우리들의 아픈 몸이 나온 것처럼 기쁘고 반가웠다. 무엇보다 그곳에서 시무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은 박 목사님이 우리보다 더 낯설게 여겨질지도 모를 동네 불신자들과 좀더 쉽게 접촉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용과 침술봉사로 도울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일에 헌터도록 우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였다. 서울에서 아침 일찍이 일어나 마려해 주신 집사님의 수고와 사랑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고 사모님이 준비하신 교구가와 호박죽을 나누면서 나더 지듯하신 목사님 내외님이 이곳 주님께 감사의 사랑을 나누고나 남을 영도의 인자로 사역을 잘 감당해 내리라는 예감이 들었다.

함께 참여한 권사님, 집사님들이 한 마음으로 합력하여 하루종일 수고하여 모두 15명의 동네 주님께 파마와 키트를 했으며 침술봉사로 14명의 환자들을 아픈 곳을 뚫아 주었다.

유난히 캄캄한 산골짜기의 밝은 달과 별들을 바라보며 어두울수록 더 밝게 빛나는 빛의 역함이 중요하다고 새삼 느꼈다. 반석교회와 빛 있는 예수 그리스도도의 복음을 잘 전파하여 산골짜기의 온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 다와 찬송과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도하며 우리는 서울로 달려왔다.

물 · 매 · 들

1999년 12월 31일

박 우 정(집사, 중등부 3교사)

요즈음 세상 사람들 사이의 최고의 관심사는 단연 새로운 세기의 시작, 즉 2000년에 대한 것인 것 같다. 언론 매체들에 따르면 새 세기를 맞는 1999년 12월 31일을 기하여 전국 곳곳에서 많은 이벤트들이 열리게 되어 있고, 그러한 행사에 함께 참여하려는 사람들로 인해 유명 관광지들은 이미 예약이 끝나버린 정도라 하니 가히 그 열기를 짐작하기도 남을 듯하다. 한 수 더 떠서 2박3일에 2천만 원이나 하는 호텔에 패키지 상품까지 나올 지경이 되었으니 새로운 시대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감을 이용한 상술에는 그저 기가 막힐 뿐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할까. 우리는 이 세기의 마지막 밤을, 새로운 세기의 첫 아침을 어떻게 맞이하려고 계획하고 있을까. 유명 관광지에서 혹은 흥행거리에는 세상 속에서 함께하여 행복하기 기대해 보이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실 2000년이란 해에도 숫자적인 의미일 뿐 아니라 다른 시간들과 크게 다르지는 않은 평범한 날이다. 더욱이 창세 천지부터 시작, 그리고 앞으로 도올로 영원하신 하나님께 보시기에...

한 세기를 마감하는 마지막 밤. 그동안 출어져 있었던 가족들이 한 데 모여 지나날들을 반성하고 앞으로의 희망들을 나누며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그리고 밝아오는 새 세기의 첫 아침에 함께 신년예배를 드려야 하는 조그마한 행복을 꿈꾸지만 너무나 편협한 생각일까.



